



야마하 선택 가이드 일렉트릭 기타



일렉트릭 기타를 선택할 때는 수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야마하는 일렉트릭 기타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이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일렉트릭 기타 작동 방식

스타일과 모델은 다르지만 모든 일렉트릭 기타는 동일한 일반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기타의 바디에 장착된 픽업은 자기장으로 기능합니다. 금속 스트링을 튕겨서 진동을 일으키면 픽업에 전류가 생성됩니다. 이 전류는 픽업에 의해 톤 컨트롤이 있는 프리앰프 회로로 전송된 다음 기타 케이블을 통해 앰프로 전송됩니다. 앰프는 신호를 증폭하고 앰프의 설계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한 톤 컨트롤 및 이펙트를 사용해 신호를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신호는 스피커로 출력되어 음파로 변환됩니다. 기타 설계에 내장된 픽업, 톤 컨트롤, 스트링, 연주 기법 및 기타 요인은 앰프로 전송되는 신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타의 각 요소는 기타 사운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렉트릭 기타 바디 유형

세 가지 기본 일렉트릭 기타 바디 스타일이 있으며,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솔리드 바디
- 할로우 바디
- 세미 할로우 바디

솔리드 바디: 솔리드 바디는 가장 일반적인 바디 유형이며 단판 목재로 만듭니다. 이 기타는 싱글 픽업 모델부터 다양한 전자 옵션을 갖춘 화려한 장식의 멀티 픽업 악기까지 다양합니다. 솔리드 바디 기타는 할로우 바디 모델만큼 울림이 강하지 않지만

이러한 기타의 사운드에도 목재가 영향을 줍니다. 야마하는 [퍼시픽](#) 및 [레브스타](#) 시리즈를 포함한 다양한 솔리드 바디 일렉트릭 기타를 생산합니다.

할로우 바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일렉트릭 기타는 어쿠스틱 기타처럼 바디 속이 비어 있습니다. 할로우 바디는 이러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울림이 강합니다. 할로우 바디 기타는 보통 아치탑이 특징이며 피드백이 더 강합니다.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종종 풍부한 톤과 강한 베이스 울림 때문에 할로우 바디를 선호합니다. 야마하 [SA2200](#)은 클래식한 할로우 바디 기타의 예입니다.

세미 할로우 바디: 할로우 바디와 마찬가지로, 세미 할로우는 솔리드 바디 기타보다 울림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세미 할로우 기타는 설계에서 솔리드 센터 목재 블록을 사용해 안정성과 서스테인이 높습니다. 피드백 또한 줄여 줍니다. 블루스와 컨트리 가스펠 연주자들은 세미 할로우의 따뜻함, 센터 블록이 주는 강한 어택감과 서스테인을 좋아합니다. 세미 할로우 기타는 가스펠부터 블루스와 재즈까지 다양한 음악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픽업 및 전자 장치

바디 스타일 외에 픽업과 전자 장치도 기타 사운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싱글 코일 픽업: 이 픽업 디자인은 최초의 디자인이자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싱글 코일은 가느다란 와이어가 감겨 있는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자기장을 만들어 스트링의 진동을 포착해 전자 신호로 변환합니다. 싱글 코일 픽업은 밝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한 밴드 사운드에서도 또렷하게 들리는 톤을 생성하지만, 험 노이즈가 나기 쉬우며 자기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험버커 픽업: 험노이즈를 없애고 싱글 코일 모델보다 더 나은 톤을 만들도록 설계된 험버커 디자인은 두 개의 싱글 코일 픽업을 병합해 와이어링한 것입니다. 서로 반대 극성을 띠도록 배치되어 험노이즈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험버커는 일반적으로 싱글 코일 픽업에 비해 더 두껍고, 더 크고, 더 강력한 톤을 가집니다. 활용도가 높지만 록, 헤비 메탈, 재즈 스타일에 적합합니다.

피에조 픽업: 이 픽업 스타일은 일렉트릭 기타의 새들에 내장된 결정형 센서로 구성됩니다. 피에조 센서는 자석이 아닌 기계적 진동에 의해 작동하여 진동하는 스트링의 소리를 전류로 변환합니다. 이러한 픽업은 신디사이저 또는 전자 키보드 같은 디지털 사운드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렉트릭 기타의 피에조 픽업은 어쿠스틱 기타 톤을 모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에조가 장착된 기타에는 종종 마그네틱 픽업이 포함되어 톤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싱글 코일 픽업 2개(위)와 험버커.

액티브 픽업 및 전자 장치

기타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해야 하는 액티브 픽업이 장착되어 있으며 사운드 셰이핑을 위한 프리앰프가 통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액티브 전자장치에는 또한 추가적인 사운드 컨트롤을 위한 필터 및 이퀄라이제이션 회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액티브 픽업이 있는 기타는 일반적으로 마그네틱 픽업보다 출력이 크고 깨끗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생성합니다.

픽업 전환 및 기타 컨트롤

대부분의 일렉트릭 기타에는 픽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싱글 코일 2, 3개가 달린 모델도 있고, 험버커가 2, 3개 달려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싱글 코일과 험버커 픽업을 결합하여 연주자에게 광범위한 톤 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픽업 구성을 말할 때는 흔히 싱글 코일을 “S”로, 험버커를 “H”로 나타냅니다. 이 알파벳 조합을 통해 넥에서 브리지까지 각 픽업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SSH” 라벨이라면 싱글 코일 픽업이 넥 쪽과 중간 쪽에 있고, 험버커가 브리지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하 [퍼시픽카 611H](#)는 다양한 사운드를 얻기 위해 다양한 픽업을 결합한 예입니다.

픽업 배치는 픽업이 생성하는 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브리지 근처에 있는 픽업은 전반적인 움직임이 가장 적은 스트링을 샘플링하므로 트래블을 강조하거나 “바이트”가 있는 음색을 만듭니다. 스트링을 기준으로 가운데 쪽에 있거나 기타의 넥 쪽에 가까운 픽업은 중음 및 저음역대가 더 강조되는 톤을 만듭니다.



픽업 셀렉터 스위치(오른쪽)와 볼륨 및 톤 노브.

픽업이 여러 개인 기타에는 연주자가 각 픽업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과 두 개 이상의 픽업 조합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컨트롤은 다이얼 노브, 블레이드형 토글 스위치 형태 등으로 연주 중에 다양한 픽업 조합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장착된 픽업 외에도 대부분의 기타에는 볼륨 및 톤 컨트롤이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출력 신호의 강도를 조절하며, 사용되는 앰프에 따라 볼륨뿐만 아니라 톤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톤 노브는 고주파를 제어합니다. 많은 기타는 픽업별로 톤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드럽고 따뜻하며 은은한 톤부터 매우 밝고 거칠고 변형된 톤까지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전환 옵션은 고유한 효과를 위해 픽업 간 페이즈(위상)를 제어하고, 험버커의 코일 하나를 제거하거나 출력을 켜고 끕니다.

연주자가 어쿠스틱, 12현, 레조네이터 기타 톤은 물론 바이올린, 피아노 및 전통적인 일렉트릭 기타로는 낼 수 없는 많은 음색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리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내장된 기타들도 있습니다. 스트링을 물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고도 다른 튜닝을 구현하는 기술이 내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스케일 길이는 스트링의 진동 부분의 길이로, 너트에서 브리지까지의 길이로 측정합니다. 스케일 길이가 길수록 더 밝고 경쾌하고 깔끔한 저음을 내고 스트링 장력이 더 큼니다. 스케일 길이가 짧을수록 장력이 낮아지므로 벤딩 주법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 길이가 짧은 경우 손이 작은 사람이 연주하기 더 쉬우며 일반적으로 더 따뜻한 톤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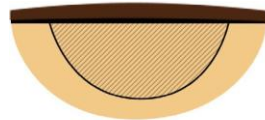
다양한 일렉트릭 기타의 스케일 길이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Fender: 25.5인치
- Gibson: 24.75인치
- 대부분의 PRS(Paul Reed Smith) 기타: 25인치
- 야마하 퍼시픽카 시리즈: 25.5인치
- 야마하 레브스타 시리즈: 24.75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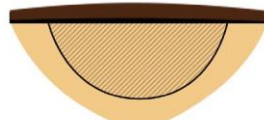
넥 프로파일 및 너비

넥은 바디 끝에서 시작해 프렛보드 및 튜너가 장착된 헤드스톡까지 포함하는 부위입니다. 넥이 휘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트러스 로드가 들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타가 일정한 피치를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렛보드는 보통 얇은 로즈우드나 에보니 판으로 넥과 프렛보드에 메이플을 사용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렛보드에는 점 또는 다른 방식으로 새겨진 포지션 마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주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프렛보드 상단 가장자리에 마크가 있는 넥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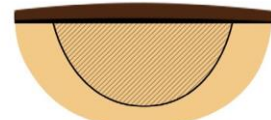
넥 프로파일, 즉 모양은 아마도 기타에서 가장 연주자를 타는 요소일 것입니다. 프로파일은 손과 손가락이 넥과 얼마나 “맞는지”와 프렛 사이를 움직이기가 편한 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부터 어쿠스틱 기타는 “C”자형의 배리에이션을 사용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일렉트릭 기타 제조업체는 연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파일을 실험하며 발전시켰습니다. 대부분의 “S” 바디 스타일 기타는 매우 두꺼운 C넥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제조업체들이 더 사용하기 편한 얇은 C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마하 레브스타 시리즈는 두 가지 넥 모양을 사용합니다. 입문용 악기에는 보다 얇은 넥과 작은 프렛 와이어가 있으며, 중급용 및 상급용 모델은 점보 프렛 와이어가 있는 약간 두꺼운 넥이 있습니다.



C자형



V자형



U자형

“V”넥 프로파일은 뒷면이 덜 둥글게 처리되어 있고 연주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V”넥을 변형한 “인버티드 V”넥은 저음 쪽은 더 두껍고 고음 쪽은 더 얇습니다.

“U”넥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긴 손가락을 가진 연주자에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중간이 파여 있습니다.

넥 너비는 넥 모양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넥 형태를 로마자가 아닌 “와이드 팻(wide-fat)”, “레귤러 씬(regular-thin)” 등으로 지칭하는 기타 제조사들도 있습니다. 넥 너비는 넓은(wide), 보통(regular), 좁음(narrow)이 있으며, 두께는 두툼함(fat), 보통(regular) 또는 얇음(thin)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면 어떤 넥인지 더 명확히 알 수 있어 기타 구매에 도움이 됩니다.

넥의 프로파일과 너비는 기타의 연주감과 운지 시의 편안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넥은 “C” 또는 “U”자 형태이지만, 넥 너비는 연주자의 손 크기와 관련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손이 작은 연주자에게는 더 좁고 얇은 넥이 좋으며, 손이 큰 연주자에게는 두꺼운 넥 프로파일이 더 편안합니다.

넥 구조

넥 구조에는 세 가지 일반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 볼트온
- 세트 넥
- 넥쓰루



볼트온

세트 넥

넥쓰루

볼트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넥은 기타 바디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구조입니다. 볼트온 넥은 수리나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세트넥 또는 넥쓰루 기타보다 전체적인 서스테인과 울림이 덜합니다. 야마하 퍼시픽카 시리즈는 볼트온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됩니다.

세트 넥: 이러한 유형은 넥을 기타의 바디에 끼우고 넥 자리에 붙인 다음, 접착제가 마를 때까지 넥을 바디에 클램프로 고정합니다. 전반적으로, 세트넥 기타의 넥은 넥 조인트가 더 안정적이고 서스테인과 울림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넥 교정은 더 어렵습니다. 야마하 레브스타 시리즈는 세트넥 방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넥쓰루: 이 넥은 기타 바디와 전체 한 통으로 이어져 있으며, 웅이나 핀을 바디의 측판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넥쓰루 스타일은 넥의 안정성이 더 크고 연주할 때 서스테인과 울림이 더 길고 큼니다. 넥 수리는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정성이 증가하면 수리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넥 목재

기타 넥이 원목이든 여러 장을 함께 붙여 만든 합판이든,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목재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균형 잡힌 악기를 제작하기 위해 기타 제작자는 경도, 무게 및 나뭇결의 조밀함을 토대로 넥에 사용할 목재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가장 인기 있거나 자주 쓰이는 넥 목재입니다.

메이플: 메이플은 기타 넥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해주는 중간 강도와 중간 무게의 목재입니다. 넥에 메이플을 사용할 때에는 핑거보드에도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호가니: 마호가니는 메이플보다 약간 더 유연하고 가벼워서 넥 소재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독특한 다크 내추럴 컬러가 메이플 또는 스프루스 탑과 매력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로즈우드: 무거운 목재로 나뭇결이 촘촘하며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브라질산 로즈우드는 현재 과도한 사용과 삼림 벌채로 인해 희귀하고 비쌉니다. 로즈우드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기 때문에 종종 핑거보드에 사용됩니다.

포 페로: 브라질산 로즈우드의 대체 소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강철 같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포 페로는 무겁고 다공성이 아니기에 마감이 용이하며 넥과 핑거보드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베이스우드: 이 목재는 비교적 넓은 나뭇결로 인해 다른 나무보다 “연성”이 강합니다. 저렴한 어쿠스틱 기타와 고급 일렉트릭 기타에 두루 사용됩니다. 제조업체는 매우 가볍고 놀랍도록 강한 넥을 만들기 위해 종종 카본/에폭시 수지로 베이스우드 넥을 코팅합니다.

프렛

프렛은 톤과 연주감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타 핑거보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타의 넥이 매끄럽고 연주감이 좋으면, 연주자가 음을 벤딩하고, 해머온과 풀오프 주법을 쓰고, 넥 위를 자유롭게 오가며 깔끔한 음을 낼 수 있습니다. 즉, 프렛이 완벽하게 맞고 적절하게 “드레싱”되어 최상의 전반적인 액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크기와 두께의 프렛이 악기의 핑거보드와 잘 어울리는지 제조업체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렉트릭 기타는 22프렛으로 되어 있지만, 연주 시에 고음역대를 주로 사용한다면 24프렛 넥을 선택하면 12번 프렛 위로 한 옥타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인토네이션은 넥 위로 손을 움직이며 연주할 때 음의 정확도를 결정합니다. 프렛 사이의 음 간격 간예(보통 12번 프렛 위로) 음이 맞지 않으면 기타는 맞는 음으로 연주할 수 없으므로 레코딩이나 공연용 악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톤우드

일렉트릭 및 어쿠스틱 기타의 바디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목재를 톤우드라고 합니다. 특정 톤우는 바람직한 톤과 서스테인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기타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특성이 다른 목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톤은 주로 스트링 진동과 픽업 자석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목재가 어째서 일렉트릭 기타 소리를 다르게 만드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용되는 목재는 기타의 음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재의 레조넌스 특성에 따라 스트링의 진동 시간과 진동 형태가 결정됩니다. 또한 목재를 사용하면 픽업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목재와 목재 유형이 기타의 전반적인 톤의 중요 요소가 됩니다. 목재 선택은 지구에 대한 책임과도 연관되어 야마하가 매우 중시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나열된 목재는 일렉트릭 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톤우드입니다. 같은 톤우드를 사용하는 기타라도 다른 구조적인 요소로 인해 두 기타의 소리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마호가니: 밀도가 매우 높고 튼튼한 마호가니는 더 단단한 목재를 필요로 하는 프렛보드와 브리지를 제외한 기타 제조의 모든 부분에 사용됩니다. 마호가니 넥과 후판은 스케일이 짧은 메이플 상판 기타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조합으로는 프렛보드를 제외한 바디와 넥 전체가 마호가니인 조합이 있습니다. 마호가니는 특별히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중음과 저음역 주파수가 강조되어 더 은은한 음색을 줍니다. 마호가니는 울림이 좋아 서스테인을 강화할 수 있는 목재입니다.

메이플: 기타 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목재인 메이플은 매우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며 종종 “피겨링”이라고 하는 매력적이고 섬세한 나뭇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플은 특유의 피겨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매우 밝은 톤을 냅니다. 특징적인 톤 때문에 메이플은 종종 고가의 솔리드 바디 기타에서 베니어 또는 상판 합판으로 사용됩니다. 메이플 합판은 아치탑 기타에서 상판으로도 사용됩니다. 메이플은 단단하여 기타에서 트레블이 많은 소리를 만듭니다. 이는 프렛보드에 자주 사용되며, 소리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 줍니다.

로즈우드: 일렉트릭 기타 프렛보드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목재인 로즈우드는 밀도가 매우 높고 단단합니다. 로즈우드는 블랙에 가까운 색상부터 얼룩덜룩한 브라운과 블론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로즈우드는 일렉트릭 기타 바디에 가끔 사용되지만 이 경우 기타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에보니: 굉장히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목재로, 주로 고가의 기타에서 프렛보드에 사용되며, 감촉이 매끄럽고 대개 전체적으로 검은색입니다.

애시: 솔리드 바디 기타에서 흔히 사용되는 바디 소재인 애시는 마호가니보다 단단하고 울림이 매우 큼니다. 기타의 서스테인을 탁월하게 만들고 밝은 톤에 중음역대가 깔끔합니다. 매력적인 나뭇결 피겨링이 있는 밝은 색의 목재인 애시는 투명하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웬프 애시는 고급 기타에 사용되는 특히 매력적이고 섬세한 목재입니다.

앨더: 애시와 소리 특징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나뭇결이 더 성깁니다. 앨더는 솔리드 바디 일렉트릭 기타에서 가장 일반적인 바디 목재 중 하나입니다. 대개 불투명한 마감으로 덮여 있지만 보통은 연한 황갈색입니다.

아가티스: 아가티스는 울림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외관과 소리 특징이 앨더와 비슷하며 신형의 합리적인 가격대의 기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토: 동방의 마호가니로도 알려진 나토는 따뜻한 울림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별히 강성이 좋은 목재이며 가성비로 인해 저렴한 일렉트릭 기타의 넥에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마감

일렉트릭 기타의 경우, 마감 유형이 어쿠스틱 기타만큼 사운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제조업체는 악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이를 고려합니다.

하드웨어

일렉트릭 기타는 다양한 용도의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은 품질의 하드웨어는 기타의 튜닝 안정성, 활용도 및 비용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개선 및 업그레이드는 연주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줄감개: 튜너 또는 헤드머신이라고 하며 보통 기타의 헤드스톡에 장착하는 이 기어 메커니즘을 사용해 스트링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스트링 장력을 조정하여 튜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식 튜너는 영구적으로 윤활 처리된 폐쇄형 메커니즘입니다. 스트링은 노브에 부착된 포스트에 고정되며 이 노브를 돌려 스트링의 장력을 조절합니다. 스트링을 한 자리에 고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튜닝 안정성을 높여주고 스트링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튜너도 있습니다. 또한 이 라킹 튜너를 사용하면 스트링을 좀 더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너트와 브리지 두 군데에서 스트링을 고정할 수 있어 튜닝 안정성이 뛰어나고, 트레몰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에 스트링이 움직이거나 너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튜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브리지 및 테일피스: 브리지는 기타 바디의 하단에 장착됩니다. 스트링은 브리지 위에 걸린 다음 바디 또는 테일피스에서 끝납니다. 브리지는 다양한 스트링의 길이, 게이지 및 금속 소재 등의 특성을 조절하여 튜닝이 틀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리지를 사용하면 스트링 길이를 조절하여 각 스트링이 fretboard 어느 자리에서든 올바른 피치의 음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며 이는 최고의 성능을 위한 기타 셋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브리지를 사용해 스트링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액션”이라고도 하는 이 스트링 높이는 스트링의 편안한 운지(손가락으로 누르기)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주자가 암을 움직임으로써 연주 시에 비브라토를 구사할 수 있는 브리지도 있습니다. 브리지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바로 와이 바라고도 합니다. 이 기능이 있는 브리지를 흔히 트레몰로라고 합니다.

트레몰로는 피치가 아닌 볼륨의 반복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브리지를 트레몰로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확한 용어지만 워낙 오랫동안 사용되어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브리지를 앞뒤로 흔들어 연주하는 음의 피치를 바꿀 수 있는 트레몰로 시스템을 플로팅 브리지라고 하며 기타에 널리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초보자는 튜닝을 제대로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줄 한 개를 가는 것도 힘들 수 있으므로 처음 쓰는 기타에는 라킹 튜닝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브리지-테일피스 시스템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튠오매틱(Tune-o-Matic): 1950년대에 Gibson이 처음으로 개발한 튠오매틱은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각 스트링의 개별 인토네이션과 스트링 높이의 전체 조정이 가능합니다.



2포인트 로킹 트레몰로 또는 풀크럼 비브라토: 이 트레몰로의 특징은 인토네이션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개별 스트링 새들입니다. 이 로킹 트레몰로는 기타 상판에 장착된 두 개의 볼트에 고정되어 움직이는 브리지에 장착합니다. 브리지에는 넓은 수직 플레이트가 있으며 이것이 기타 바디와 연결됩니다. 이 프리플로팅 플레이트를 스트링의 장력에 맞게 스프링으로 기타 내부에 부착합니다. 라킹 튜너는 스트링을 고정해 놓는 방식이므로 튜닝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킹 비브라토: 발명가의 이름을 따 플로이드 로즈 브리지라고도 불리는 라킹 비브라토는 2포인트 락 트레몰로와 같은 개별 인토네이션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타 상판의 볼트 두 개에 고정되어 움직이며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라킹 비브라토가 브리지와 헤드 너트 두 군데에서 스트링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브라토 암을 격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튜닝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빅스비(Bigsby): 빈티지 및 빈티지 스타일 기타에서 볼 수 있는 스프링이 장착된 비브라토인 빅스비(디자이너 폴 빅스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는 로테이팅 바 위에 모든 스트링을 얹는 방식이며 비교적 크고 무거운 장비입니다. 빅스비의 빈티지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6포인트 로킹 트레몰로: 1950년대 Fender가 디자인한 오리지널 로킹 비브라토입니다. 2포인트 트레몰로와 마찬가지로 6포인트 로킹 트레몰로는 쓰루바디 방식이며 스프링이 장착되어 개별 스트링 인토네이션과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트레몰로가 나사 6개 위에서 움직이면서 상판으로 더 큰 진동을 전달해 울림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연주자들도 있습니다.

트래피즈 테일피스: 이 스타일은 공중 그네가 흔들리는 것 같은 모양의 힌지형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할로우 바디 기타, 특히 빈티지 모델에서 볼 수 있는 트래피즈 테일피스는 기타의 끝부분에 부착되어 상판이 스트링 장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트링 쓰루 바디: 이 비브라토를 사용하면 스트링을 브리지 새들 위로 지나게 한 후 기타 상판의 구멍으로 넣어 후면으로 뺀 뒤 금속 페룰에 고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외관이 깔끔하며, 연주자들이 서스테인이 강해진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떠한 기타를 사야 하는가?

기타 구매는 개인적인 사건으로, 선택한 악기가 신중한 과정을 통한 결과여야 합니다.

- 현재의 음악적 수준과 앞으로 원하는 수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 연주하고 있거나 연주하고 싶은 음악적 스타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 기타를 여러 대 비교해 보며 넥과 바디 모양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모델이 잡고 연주하기 가장 편한지 자문해 보십시오
- 같은 곡을 다른 기타로 연주해 톤을 비교해 보십시오(앰프는 동일한 앰프 사용)

멋져 보인다가거나 존경하는 기타리스트가 연주하는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타를 골라서는 안 됩니다. 기타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각자 개성이 있어 서로 잘 맞을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국, 성장에 도움이 될 기타가 좋습니다. 잘 맞는 동반자는 더 좋은 연주자이자 더 행복한 유지션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야마하 일렉트릭 기타의 전체 라인업을 보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야마하 예배용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당사 예배용 제품 사이트](#)를 방문해 상단 메뉴에서 문의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어떤 문의든 환영합니다.

용어집

아발론: fretboard 및 헤드스톡 인레이와 같이 어쿠스틱 기타 무늬나 장식을 넣는 데 사용되는 거대한 바다 달팽이 껍질로 된 단단한 상감.

액션: 어쿠스틱 기타에서 fret과 스트링 사이의 거리.

어택: 스트링을 튕겼을 때 나는 첫 소리로 묵음과 최대 볼륨 사이.

아치탑: 조각이나 압력으로 상판을 아치형으로 만든 기타. 브리지와 테일피스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베이클라이트: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기타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의 초기 형태.

빅스비(Bigsby): 폴 빅스비가 개발한 단순한 너리세스드 방식 비브라토.

바인딩: 상판, 후판, 넥, 핑거보드, 경우에 따라 헤드스톡까지 포함하여 가장 바깥쪽 둘레를 따라 목재 또는 플라스틱 소재의 보호 및 장식용 띠를 두르는 것. 이는 연결 부위를 밀봉하고 보호하기 위한 커버입니다. 때로는 바인딩을 퍼플링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바인딩의 일부가 아닌 바인딩 옆에 있는 인레이입니다.

블록 마커: 정사각형, 직사각형 또는 상어 이빨 모양의 인레이 핑거보드 포지션 마크.

바디: 기타의 본체 부분으로 컨트롤, 브리지 및 픽업이 장착됩니다. 바디는 할로우, 세미 할로우 또는 솔리드 디자인일 수 있습니다.

볼트온: 넥을 접착하지 않고 볼트로 제자리에 부착하는 방식의 악기를 의미합니다.

북매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일렉트릭 기타 및 아치탑 기타는 상판과 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판을 붙여 큰 나무판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북매치는 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목재를 말하며, 슬라이스를 이어지게 절단해 판의 나뭇결이 대칭이 되도록 만든 단판입니다.

바우트: 기타의 좁은 웨이스트 위아래의 둥근 부분을 바우트라고 합니다. 웨이스트 위는 어퍼 바우트, 아래는 로어 바우트라고 합니다.

브레이스: 기타 내부의 목재 지지 구조로, 악기에 일체감을 제공하며 톤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X” 브레이스는 할로우 바디 기타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패턴입니다. 다른 브레이싱 패턴에는 “래더”, “팬” 및 “스캘럽드”가 있습니다.

브리지: 대부분의 기타에서 스트링을 고정하고 진동을 사운드보드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목재 부품입니다. 브리지는 브리지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브리지 플레이트 위에 놓일 수 있으며, 씘휠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브리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공됩니다. 솔리드 바디 일렉트릭 기타에서 브리지는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스트링에 달는 새들을 고정합니다. 아치탑 기타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링의 장력으로만 브리지를 고정하므로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플로팅” 브리지라고도 합니다.

브리지 핀: 브리지 홀에 끼우고 그 안에 스트링을 넣어 고정하는 핀. 스트링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에보니로 만들기도 합니다.

볼릿: 헤드스톡의 트러스 로드 조절 너트의 생김새로 인해 붙은 이름.

캡: 흔히 사용되는 전기 장치로 커패시터라고도 하며, 보통 일렉트릭 기타의 톤 포텐셔미터에 사용되는 전하를 저장합니다.

셀룰로이드: 기타 픽가드, 튜너 및 바인딩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 이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됩니다. 빈티지 기타는 셀룰로이드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센터 블록: 세미 할로우 기타 바디를 관통하는 솔리드 목재 블록.

체킹: 래커로 마감된 기타에서 발견되는 갈라짐 현상. 빈티지 기타는 종종 기타의 목재가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발생한 체킹이 있습니다. 체킹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습도와 적당한 범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컷어웨이: 연주자가 기타의 상단 프렛으로 더 쉽게 팔을 뻗을 수 있도록 어퍼 바우트를 파낸 기타(“싱글 컷”이라고 함). 양쪽에 컷어웨이가 있는 기타(“더블 컷”이라고 함).

도그 이어: 마운트 부위가 있는 P-90 스타일 픽업의 별칭.

도트 벡: 간단한 점 표시로 벡 포지션 마크를 한 기타.

F홀: 할로우 바디 및 세미 어쿠스틱 기타의 “F”자형 사운드홀.

핑거보드(프렛보드라고도 함): 기타 넥에서 연주에 쓰이는 표면. 일반적으로 넥에 접착된 얇은 나무판으로, 그 위에는 프렛이라는 얇은 금속 조각이 반응씩 올라가도록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감: 종종 페인트 또는 래커로 기타에 도포하는 보호 코팅.

고정 브리지: 비브라토 브리지가 아닌 브리지.

플레임: 빛이 다른 각도에서 비출 때 반짝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불꽃과 같은 모양의 강렬한 나뭇결 패턴이 있는 일부 목재의 특성. 때때로 “플레임 탑”이라고도 합니다.

프렛: 반응씩 올라가도록 간격을 두고 프렛보드 위에 배치된 얇은 금속 조각.

행 태그: 쇼 룸의 기타에 달린 작은 태그와 카드. 빈티지 기타의 행 태그는 일반적으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드 테일: 비브라토 브리지가 없는 일렉트릭 기타.

헤드스톡: 기타 넥의 최상단 부분으로, 줄감개가 있습니다. “페그헤드”라고도 합니다.

힐: 넥의 가장 아래 부분으로, 바디에 부착하기 위해 넓게 만듭니다.

할로우 바디: 어쿠스틱 기타와 같이 얇은 바디를 가진 일렉트릭 기타 바디 스타일.

햄버커: 노이즈를 제거하는 트윈 코일 픽업.

인레이: 순수한 미적 목적을 위한 기타의 프렛보드, 헤드스톡 또는 바디의 디자인. 일반적으로 인레이 디자인은 목재 위에 부조 후 자개, 금속, 아발론 또는 플라스틱 등 여러 소재 중 하나로 채웁니다.

인토네이션: 프렛보드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톤 간의 관계. 각 스트링 12번 프렛의 음은 동일한 스트링의 12번 프렛의 한 옥타브 높은 음과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의 인토네이션을 조정해야 합니다.

잭플레이트: 출력 잭용 장착 플레이트.

합판: 단판과 반대로, 합판은 얇은 판재를 붙여 만듭니다.

라킹 너트: 너트에서 스트링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볼트.

루시어: 현악기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

헤드머신: 튜너 또는 튜닝 머신이라고도 하는 헤드머신은 스트링의 장력을 조정하여 피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넥 블록: 넥 끝부분의 바디 안에 있는 넥 블록은 넥을 바디에 장착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넥 픽업: 넥에 가장 가까운 픽업을 의미합니다.

넥 플레이트: 기타 바디에 넥을 고정하는 금속판.

넥 프레스: 낮은 열과 압력을 사용하여 넥을 곧게 펴는 프레스.

넥 리셋: 핑거보드와 브리지 사이의 올바른 각도를 복원하고 기타를 연주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액션을 내 줍니다.

너트: 프렛보드 위쪽에 있는 너트는 스트링이 튜너 쪽으로 고른 간격으로 걸리도록 하고 기타의 넥에 진동을 전달합니다.

P-90: 초기 스타일의 싱글 코일 픽업.

패시브: 추가 전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픽업.

페그헤드: 튜너가 장착되는 곳, “헤드스톡”이라고도 합니다.

픽가드: 사운드를 아래에 있는 얇은 판으로, 기타의 스트링을 튕기거나 쓸며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부터 기타의 상판을 보호합니다. 스크래치 플레이트라고도 합니다.

포트: 포텐셔미터의 약어로 일렉트릭 기타의 바디에 장착되어 흔히 볼륨과 톤 컨트롤에 사용됩니다. 톤 포트에는 일반적으로 회로에 납땜된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퀄티드: 물결 모양이나 접힌 모양을 연출하는 특정 톤우드의 시각적 특성. 일반적으로 메이플을 가리키며 “메이플 퀄팅” 또는 “메이플 퀄티드”라고 합니다.

리핀(Refin): 리피니쉬 기타.

리프렛: “프렛 작업”이라고도 하며, 기타 프렛보드의 재프렛팅을 의미합니다.

릴리프: 악기 넥 부분을 위로 휘게 하여 스트링이 프렛을 건드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넥이 휘어지거나 틀어진 경우 열을 가하고 눌러 벌어진 정도가 적당하도록 복구해야 합니다.

라우트: 기타 안에 만든 구멍 또는 공동으로, 종종 기타의 바디에 있습니다.

새들(브리지 너트라고도 함): 너트와 마찬가지로 새들은 브리지에서 스트링을 띄우고 브리지와 함께 스트링의 진동을 상판으로 전달합니다.

스케일 길이: 스트링의 진동 부분의 총 길이로, 일반적으로 너트에서 새들까지 길이 또는 너트에서 12번째 프렛까지의 거리의 두 배.

세트 넥: 바디에 접착되는 기타 넥.

셋업: “인토네이션” 및 “액션”을 세팅하는 기타 수리 용어.

싱글 코일 픽업: 자석을 한 개의 코일로 감싼 초기 픽업 디자인.

습바: 마운트 부위가 없는 P-90 스타일 픽업의 별칭.

솔리드 바디: 솔리드 바디로 된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홀: 악기 소리가 뻗어 나오도록 돕는 할로우 바디 기타 상판의 구멍.

스플릿 코일: 여러 코일이 감긴 더블 코일 픽업은 표준 2코일 픽업보다 작고 코일 하나당 2개의 스트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와 “A”줄에 코일 1개, “D”와 “G” 줄에 코일 1개를 사용합니다. 스플릿 코일은 일반적으로 험 캔슬링이 덜하지만 고주파 반응은 더 좋습니다.

스톱 테일피스: 기타 상단에 부착되어 스트링을 상단에 고정시키는 스톱 테일피스는 때때로 스테드 테일피스라고도 합니다. 구멍을 통해 스트링이 스톱 테일피스를 통과하여 브리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서스테인: 스트링이 진동하는 시간의 길이.

T형 프렛: 금속 프렛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T형 프렛은 대부분의 리프렛에 사용됩니다.

테일피스: 일반적으로 브리지 핀이 없는 악기에서는 스트링을 고정하는 데 테일피스를 사용합니다. 보통 엔드 블록에 장착하며 스트링이 브리지를 지나 기타 상판까지 내려오도록 당깁니다.

썸 라인: 할로우 바디 일렉트릭 기타.

쓰루 넥: 넥이 기타 바디의 중앙까지 통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썸휠: 브리지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 브리지에 달려 있는 작은 휠. 조절식 브리지의 상단 부분 밑에는 편평한 휠이 있습니다. 포스트에서 위 또는 아래로 나사를 돌려 브리지 높이를 올리거나 낮춤으로써 플랫보드에서 스트링이 떠 있는 높이를 전체적으로 조정합니다.

트래피즈 테일피스: 공중 그네가 흔들리는 것 같은 모양의 힌지형 메커니즘. 스트링을 트래피즈 테일피스에 바로 걸어 바디의 스트링 장력을 줄입니다.

트레몰로: 비브라토 또는 트레몰로 암에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

트러스 로드: 주로 금속 소재이며 넥 전체에 삽입되어 있는 얇은 내부 막대. 스트링의 장력에 따라 넥의 각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트러스 로드 커버: 트러스 로드 조절기의 렌치 구멍을 덮는 판.

튠오매틱(Tune-o-Matic): 2개의 썸휠 위에 장착되는 브리지로 6개의 새들이 있으며, 이 새들에서 각 스트링의 인토네이션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튜닝 머신: 스트링 장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사용되는 기계적 장치. 기타 헤드스톡에 위치한 튜닝 머신은 6개 일체형, 1개씩 개별형, 3개씩 2세트 일체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베니어: 기판에 붙이는 얇은 나무판으로 기타에 사용됩니다.

비브라토(트레몰로): 비브라토 암을 누를 때 스트링의 피치를 변경할 수 있는 브리지 및/또는 테일피스. 와미 바라고도 합니다.

블루트: 페그헤드 바로 뒤에 넣는 목재 조각으로, 이 헤드스톡이 시작되는 넥 부분을 강화합니다.

웨이트: 기타 바디의 가장 좁은 부분.